



“대림 제 3 주일”

자선 주일 (가해)

<http://www.sjkoreancatholic.org/>

[ 마 태 , 11.2-11 ]

2010.12.12

## 금주의 강론

[ 유한빈 신부님 강론에서 ]



대림 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주는 기다림, 2주는 회개, 3주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천명의 군중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라자로의 시체 앞에서 먼저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기적을 써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처한 현실 안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렇게 행동으로써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 사정, 가정의 불화, 자녀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어깨는 자꾸 처지고 두 무릎은 힘이 빠져 갑니다. 기뻐하라는 소리가 나에게서는 해당되지 않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시각답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 뿐이지만, 하느님이 바라 보시기에는 완성을 위한, 만족과 행복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고 있는 기쁨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비록 힘이 빠져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만큼, 힘이 빠져 있는 만큼 하느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어려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독서와 복음에서처럼 기쁨을 느낄 만한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일로 기쁨을 목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기쁨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과 시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과 함께 있음으로 희망과 행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매우 적합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기뻐하는 대림 3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비록 어려움뿐이지만, 어려움을 넘어 삶의 희망을 발견하라 하십니다.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성가대 좌석에는 Open Mic가 두대 설치되어있으며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항상 정숙하게 좌석에서 다른 교우들이 좀더 분심없이 미사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성가대 웹에 단원 사진이 누락되신 분들은 금주에 촬영할 예정이니 빠짐없이 참석 요망합니다.
- 성탄 전야 음악회 연습; 성가대 연습실에서 12/3(금)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 축하 합니다. 지난 주 성심 성가대 정기 총회에서 만장 일치로 최 주남 예로니모 단장님이 연임으로 재선 되셨습니다. 모든 단원들이 합심하여 좀더 나은 성가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단장님과 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정기 총회 회의록은 별첨되어 있으며, 재정결산 심의는 금주 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 경자 율리아나 자매님과 박 영아 소피아 자매님은 현재 한국 방문중에 계십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필리 4. 9)”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서 요한을 두고 군중

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나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1분 명상

♡"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

송영진 모세 신부님



대림시기란,  
우리가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일년 동안 속세에서 놀만큼 놀았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묵욕재계하고  
옷 갈아 입고 준비를 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회개와 보속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표시입니다.

토막 교리

“미사 도구(5)”

감실(龕室, tabernaculum tabernacle)



감실은 성당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담은 성합(聖盒)을 넣어보관하는 곳(함)으로 성당의 중심이다.

성광(聖光, ostensorium, Monstrance)



성체현시, 성체강복, 성체행렬 등에 성체를 보여주는데 쓰이는 것으로 가운데 부분에 성체를 두는 투명한 반월형의 성체용기가 있어 물결 모양이나 직선 광선이 방사(放射)된다. 성체의 존엄을 표현하기 위해 보석 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장식한다.

토막 전례

대림 제 주일은 ‘장미주일’ 이라고도 하는 ‘자선주일’ 로 일 년에 딱 두 번 장미빛 제의를 입는 날입니다. 사순 제 4 주일과 대림 제 3주일로서 장미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하니 자선을 베푸는 것은 바로 장미빛 기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